

20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 결과보고서

2024. 1. 28.~2. 2.

국제개발협력센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배경 및 목적

- (KSP 배경) 기획재정부와 KDI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97개국 대상의 1,60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23.7 기준)
- (우즈베키스탄 KSP 협력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KSP 원년 협력국 중 하나로, 2004년 착수 이래 총 20개 사업(63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공동컨설팅, 연수를 수행
 -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의 사업수요에 근거, 2022/23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업에 이어, 20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업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수행할 예정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정책자문 주제 및 연구진

| # | 주제 | 연구진 |
|--|--|----------------|
|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 | |
| 1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 선지원(한양대학교 조교수) |
| 2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개선방안 | 이민창(조선대학교 교수) |
| 3 | 핀테크 신생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 서비스 도입방안 | 유성희(KDI 전문위원) |

수석고문: 이찬우(現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前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前기획재정부 차관보)
 KDI 사업책임자: 우혜영(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팀 팀장)
 KDI 사업관리자: 정희선(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YKSPian: 박하영(경희대학교 국제학과)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진행 현황

| # | 일시 | 사업단계 |
|---|-------------------|-----------------------------|
| 1 | '23.05.30. | 사전협의 |
| 2 | '23.10.31.-11.04. | 착수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현지출장) |
| 3 | '23.12.12. |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
| 4 | '24.01.28.-02.02. |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현지출장) |
| 5 | '24.03.26. |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
| 6 | '24.04.21.-04.26.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
| 7 | '24.07.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현지출장) |

- **(현지세미나 배경)**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관계자 및 현지 핀테크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핀테크 산업 현황,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연구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
- **(세부실태조사 배경)**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관 및 현지 핀테크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국 현황자료 확보 및 정책수요를 파악

2 출장개요

- **기간** : 2024년 1월 28일(일) ~ 2월 2일(금)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출장자 (총 7인)**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역할 |
|---|-----|---------------------|-----------------------|
| 1 | 우혜영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장 | 사업책임자 |
| 2 | 이민창 | 조선대학교 교수 | 선임연구자 및 과제연구자(주제2) |
| 3 | 선지원 | 한양대학교 조교수 | 과제연구자(주제1) |
| 4 | 유성희 | KDI 규제연구센터 전문위원 | 과제연구자(주제3) |
| 5 | 정희선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사업관리자(정) |
| 6 | 김윤경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사업관리자(부) |
| 7 | 박하영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인턴 | 우즈벡 YKSPian |

- **주요 활동**
 - (현지세미나)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관계자 및 현지 핀테크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핀테크 산업 현황,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연구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
 - (세부실태조사)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관 및 현지 핀테크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국 현황자료 확보 및 정책수요를 파악
 - (실무협의) AA 체결, 현지전문가 계약체결 및 향후 사업 일정 협의

3 출장일정

□ 전체 일정

| 날짜 | 시간 | 일정 및 주요업무 | 비고 |
|-----------|-------------|---|-------|
| 1월 28일(일) | 15:35-19:25 | 서울-타슈켄트 | KE991 |
| 1월 29일(월) | 09:30-17:00 | 현지세미나 | |
| 1월 30일(화) | 9:00-10:30 | (실태조사) 핀테크 기업 Payme 방문 | |
| | 12:00-13:30 | (실태조사) 핀테크 기업 Uzum 방문 | |
| | 14:00-15:00 | (실태조사)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지부 방문 | |
| 1월 31일(수) | 9:30-11:30 | (실태조사) 핀테크 기업 Payze 방문 | |
| | 11:00-12:00 | (사전타당성조사) 스타트업 관련 고등교육과학혁신부 방문 | |
| | 14:00-16:00 | (실태조사) 국영통신사 Uztelecom 방문 | |
| | 16:30-18:00 | (사전타당성조사) 핀테크 금융 샌드박스 3차년도 관련 경제재정부 방문 | |
| 2월 1일(목) | 14:00-15:00 | 마무리 회의 | |
| | 23:20- | 타슈켄트 출발 | HY511 |
| 2월 2일(금) | -09:30 | 인천 도착 | |

□ 20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Plus 현지세미나 세부 일정

- 일시: 1월 29일(월), 09:30-17:00(타슈켄트 시간)
- 장소: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 언어: (영어)진행 및 발표, (한-우 순차통역)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시간 | 내용 | 발표자 |
|----------------------------|--|------------------------------------|
| 개 회 | | |
| 09:30~09:35 | 5' 환영사 | Otabek Karimov (우즈베크 현지관계자) |
| 09:35~09:40 | 5' 개회사 및 KSP 소개 | 우혜영 (KDI) |
| 연구진 주제 발표 및 토의 (오전) | | |
| 09:40~10:00 | 20' (주제1)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범·제도 구축방 안: 한국 사례 제시 | 선지원 (광운대학교 조교수) |
| 10:00~10:20 | 20' (주제2)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개선방안: 한국 사 례 제시 |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
| 10:20~10:40 | 20' (주제3) 핀테크 신생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지원을 위 한 기술 서비스 도입방안 | 유성희 (KDI 전문위원) |
| 10:40~11:30 | 50' 전체 주제 관련 질의응답(순차통역) | 참석자 전원 |
| 11:30~13:00 | 90' 공식 오찬 | 참석자 전원 |
| 실무진 발표 및 토의 (오후) | | |
| 13:00~13:30 | 30' (특별세미나) 한국 금융핀테크와 데이터기반 사업컨설팅 도입 | 이태욱 (신한카드) |
| 13:30~14:00 | 30' 특별세미나 관련 질의응답(순차통역) | 전체 |
| 14:00~14:10 | 10' 휴식 | 전체 |
| 14:10~14:30 | 20' (발표1)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과 규제 상황 | Jasur Jalolov (거시경제연구소) |
| 14:30~14:50 | 20' (발표2)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 Otabek Nasirov (FAU) |
| 14:50~15:00 | 10' 휴식 | 전체 |
| 15:00~15:20 | 20' (발표3) 핀테크 산업 - 2030 전략 | Siroj Boboiev (SBO Insights) |
| 15:20~15:40 | 20' (발표4)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 및 벤처 자본시장 | Davron Parmonov (Aloqaventures) |
| 15:40~15:50 | 10' 휴식 | 전체 |
| 15:50~16:50 | 60' 종합 토론(순차통역) | 참석자 전원 (우혜영 사회) |
| 폐 회 | | |
| 16:50~17:00 | 10' 폐회사 | Otabek Karimov (우즈베크 현지관계자) |

※ 오후 신한카드 특별세미나 및 (발표2)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은 VC로 진행

4 출장 활동내용

1. 23/24 우즈베키스탄 KSP+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현지세미나

-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9:30-17: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경제재정부 대회의실 및 온라인 동시 진행
- 참석자(현장):
 - 한 국: 우혜영, 유성희, 김윤경,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선지원(한양대), 장알렉(통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Otabek Karimov,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Alibek Bekmirzaev(법무부 현지전문가), Bakhrom Juraev(중앙은행 현지전문가), Jasur Jalolov(거시경제전망연구소 현지전문가), Zuhridin Shadmanov(ICT부 현지전문가), Siroj Boboev(SBO Insights 관계자), Davron Parmonov(Aloqavertures 관계자), Husan Bakirov, Gulzora Khaxarova, Jaloliddin Sadridinov(조세예산과학연구소 관계자)
- 참석자(화상):
 - 이태욱(신한카드), Otabek Nasirov(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협회 현지전문가)

□ 개회사 (Otabek Karimov, 경제재정부 현지관계자)

- (소개) 본 사업은 한국 KDI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재정부, 중앙은행, 법무부, ICT부, 거시경제전망연구소 등 5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현지 세미나에는 유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민간기업 인사를 초청하여 앞으로의 협업을 도모하고자 함.
- (감사 및 기대 표명) 오늘 각 기관 발표 참여에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함. 지식과 경험 공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람.

□ 환영사 (우혜영, KDI 평가팀장)

- (KSP소개) KSP 사업은 협력국의 경제 지원 및 협력국과의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며, 우즈베키스탄은 KSP 최초 협력 사업 국가 중 하나로 63개 주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
- (감사 및 기대 표명) 이번 주에는 오늘 세미나 외에도 현지 민간기업의 정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면담을 준비함. 실무자와의 토론을 통해 더욱 실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람.

<오전 발표세션>

- (주제1)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선지원, 한양대학교 조교수)
 - (한국 규제 샌드박스 기반 소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타임라인을 소개하며,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정의 구체화
 - (연구의 필요성) 일시적 법령으로 혁신기술 증진을 강조해도, 주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해야 함.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입법 역할을 할 수 없음. 사례 예시로 한국 혁신금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조항을 제시함.
 - (한국 사례의 함축) 법률의 중요성, 효율성, 민주성, 유연성 4가지 요소 모두 고려 필요
- (주제2)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개선방안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 (연구 현황) 22/23 우즈베키스탄 KSP+ 1차년도 연구 내용 및 연계상황 소개함. 또한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전년도에 도출한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관련 분야 시사점을 적용한 실무 체계 제언 예정을 밝힘.
 - (한국 핀테크 발전 체계 소개) 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는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소위원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핀테크센터라는 단일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다수의 부처를 방문할 필요 없음.
 - (조사 계획) 핀테크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방문 면담을 통해 실무절차 조사를 할 예정이므로 관심과 협력을 요청
- (주제3) 핀테크 신생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 서비스 도입 방안 (유성희, KDI 제도연구팀장)
 - (연구목적 및 주제) 1차년도 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시장은 초기 결제 기능에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2차년도에는 현지 현황 및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안, 이에 적합한 기술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함.
 - (한국 핀테크 산업 현황) 한국은 2017년 핀테크 기술 채택률(fintech adoption rate)이 32%로, 세계평균 33%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이후 핀테크

크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설, 핀테크 관련 법안 개정 등 여러 기 반을 마련하여 2019년에는 채택률 67%와 유니콘 기업 1개를 달성함.

- **(한국 기술 사례 제시)** 정부 차원의 핀테크 서비스(제로페이), 민간 기 업의 모바일뱅킹 송금과 대출 비교 서비스 등을 소개

□ 오전 발표 관련 종합토론

-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매뉴얼은 영어로 제공될 예정
- **(법무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현재 핀테크 외 주제에서도 총 8개 규 제 샌드박스 법안을 작성 중임. 필요 면허를 면제하거나 기존 허가제가 아닌 특수 체제 하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건축, IT,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진행하고자 함. 한국에서 샌드박스 법안을 작성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제한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질문함.
 - 1년차 보고서 내에 입법 관련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 바람. 가장 우선적으로 는 1) 단일한 종합적 법률을 통해 전체 샌드박스를 조정할 것인지, 2) 한국 사례처럼 산업분야 및 영역별로 입법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우즈 베키스탄 정책환경 분석 결과, 작년 연구에서는 종합적 법률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제안함.
 - 또한 법률 내용에는 규제특례에 영향받지 않는 법안을 확실히 명시하고, 이 러한 법률이 어떤 사업에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 명시해야함. 이외 사항은 각 부처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규제 샌드박스는 발전 과정상 대륙법을 통해 생성되지 않고 실무적인 이유 로 탄생함. 입법정책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정책과 대륙법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함. 타 기술 분야 예시로, 한국 바이오업체는 체혈 없이 단 순 피부접촉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함. 현재 한국 의료법 에서는 혈당 측정 및 처방을 혈액 채취 및 주사액 처방으로 간주하고 의사 만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 기술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며 특례 제도를 만들려면 최소 3년이 걸림. 3년이면 현장에서 더욱 진보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특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
- **(중앙은행)** 핀테크 센터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1개 사업만 테스트가 진 행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만을 다루는 센터를 개설하기에 시기상조 가 아닐지 질문함.
 - 한국 법 집행시스템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정부 보편 서비스와 민간 시 장 사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이지만 시장에서 서비스하기 어려운 분 야를 공기업이라는 영역에서 담당함.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철도 및 전기는

공기업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음. 한국에서는 공기업 외의 방법으로 금융을 포함한 몇 가지 분야에서 정부 구성 협회가 감시 및 회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 해당 협회 조직이 확대되고 권한이 많아지면 공공기관이 되기도 하 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이 된 단계임.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협회(FAU) 또한 이러한 공공기관이 되기 전 단계로 보이는데, FAU의 임무 및 인원이 예산 집행으로 확대되면 중앙은행이 이 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정해야 함. 협회는 회비를 받아 회원의 이 득을 추구하고, 정부 기구는 예산을 받아 정부 정책을 우선하는데, 이 충돌 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해야 함.
- **(경제재정부)**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정부기관이 지역 개발 분야도 관리 함.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와 같이 정부 주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한 지 역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함.
 - 우리 사업이 다루는 분야는 어디까지나 핀테크 중소기업이 회사 설립을 위 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부처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내용으로, 중소기업혁신부가 핀테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별 개입.
- **(경제재정부)** 전체 발표 내용 중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를 구분하 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지 질문함.
 -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는 시장에 혼재하므로 명확한 구분이 없지만, 법률 적 편의성을 위해 각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표기함.
- **(경제재정부)** 주제 3 발표에서 언급된 “결제 한도 제한”의 필요성에 대 해 설명을 요청함.
 - 주제 3 20p에서 언급된 결제 한도 제한은 결제 편의성을 위해 핀테크 회사 가 도입한 BNPL(Buy Now Pay Later) 시스템에서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 도록 추가됨.

<오후 발표세션>

□ (화상 특별세미나) 한국 핀테크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이태 육, 신한카드)

- **(신한카드 국내의 사업 소개)** 한국의 3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신용카드 회사로, 현재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 금 융회사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
-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한국은 현금 대신 신용 및 직불 카드 사용하 며 현재 총소비의 80% 이상이 카드를 통한 결제임

- 21세기 초부터 카드번호, 핀코드 등 안전한 결제 방식 도입,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결제 방법 및 모바일 앱 등장 등으로 결제 방법 진화해 옴
- 신한카드 Shinhan Play 앱 및 FAN 플랫폼 소개
- 생체 인증 기술 개발로 지문을 이용한 거래에서 얼굴 인식기술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음성 인증 기술도 도입 예정
-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신한카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에 참여
 -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재난 및 경제 지표 데이터 제공
 - 다양한 파트너십 및 제휴를 통해 사용자들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현재 3백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3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
- **(개인정보 및 데이터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법 규정 준수를 위해 개인 식별 정보 대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 다양한 통계를 생성
- **(친환경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친환경 서비스인 'Green Index'를 통해 카드 사용량 기반으로 사용자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상 제도 도입
- **주요 질의응답**
 - **(데이터 활용과 사용자 동의)** 회사는 고객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 규정 준수에 주의하고 있으며,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데이터는 익명화된 형태로 활용
 - **(FAN 플랫폼과 신한카드 앱의 차이)** FAN은 금융 및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 신한카드 앱에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함
 - **(규제 샌드박스 경험)** 신사업 아이템은 전부 금감원과 정부 규제 검토를 받고 지침에 따르고 있음(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특정 답변 없었음)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과 규제 상황 (Jasur Jalolov, 거시경제연구소)

- **(국가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5월 기준 총인구 약 3천 5백만 명, 비도심 인구 50%, 평균나이 29세, 인터넷 사용률 70%, 모바일 연결 3천만 건, SNS 사용자 수 6백만 명, 활성화된 은행 카드 3천만 건을 기록
- **(핀테크 산업 관련 정부 지원)** 대통령의 금융분야 강조로 법령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분야가 총 GDP의 4.5%를 차지함. 혁신개발부 및 IT 파크가 신설되었고, 오픈데이터, AI 등의 전문가가 국내 진입 중

-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 Click, TBC Bank 등 급성장 기업 모델 소개
-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 전략 소개)** 2013-2020 국가 정보통신시스템개발프로그램, 2017-2021 국가 5개 최우선 개발분야 전략, 2020-2030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22-2026 신 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 2023-2027 전자상거래 전략 등

□ 핀테크 산업 - 2030 전략 (Siroj Boboev, SBO Insights)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현황)** 2024년 기준 신규 핀테크 기업 4개 출범, 총 고객 840만 명, 총 핀테크 카드 수 3천 4백만 건, 온라인 거래액 245조 UZS, 은행 비사용 인구 51%, QR 거래액 1천 916억 UZS을 기록
- **(주요 서비스)** 비금융서비스, 전자신분증, 전자지갑, 정부서비스 결제, 일반 디지털결제(대면 및 온라인), 개인 간 송금, QR 결제, 국제송금
- **(우즈베키스탄 벤처 자본시장 구조 소개)** Aloqaventures, UzVC, UC Ventures, semurg.vc 등
- **(2030 핀테크 시장 전략)** 정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중앙은행 및 결제서비스 제공 민간기업 간의 효율적 소통창구 마련, 국제 결제 서비스(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에 우즈베키스탄 국내 은행 카드를 포함, 중앙은행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 현금 외 결제방법 도입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해외 온라인 계좌 개설 허가 간소화, 국제 핀테크 단체 및 서비스 협력 유치 및 사기 방지 규정 확립 등을 제안함.
- **(조직개설 제안)** 중앙은행 주도로 핀테크 개발 위원회를 개설하여 법안 및 라이선스 과정 개정, 소비자권리 보호, 혁신기술 지원, 민간 의견 취합, 규제 샌드박스, 모니터링 및 분석, 인프라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제안함.

□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 및 벤처 자본시장 (Davron Parmonov, Aloqaventures)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시장 투자현황)** 평균 투자비용 5만 USD-25만 USD, 총 자본 800만 USD에 달함. 펀드 조달방법으로 일반 자본금 조달, 조건부/전환사채,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노트, 또는 혼합금융상품을 소개함.
- **(Aloqaventures 소개)**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27개 스타트업 증진, 20개

성공적으로 졸업, 1개 PnP(Plug and Play, 초기 단계 투자)를 기록함. 세계 단위로는 33개 유니콘기업에 투자함. 투자금 조달 방식 및 현황을 설명하며,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개발에 기대가 크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힘.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Otabek Nasirov, FAU)

- **(FAU 소개)** 현 핀테크 산업 현황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협회의 목적과 역할을 소개함. FAU는 다국 핀테크 협회와의 국제적 파트너십, 국내 핀테크 커뮤니티로서의 역할,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주도,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 규제 자문 등을 목표로 함.
- **(향후 전망 및 필요 기반)** 5년 이내로 디지털 결제, 개별 인터넷 상거래, 슈퍼 어플리케이션(다목적 핀테크 앱), 다국적 핀테크 기업 출범, BNPL 시스템, 배달 및 로지스틱스 등의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같은 시기 이내로 신기술과 AI에 대한 법률적 기반, 사기 및 범죄 예방책, 암호화폐 대응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핀테크 금융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요 규제 기관인 중앙은행, 디지털기술부, 국가전략사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야 함을 역설함.

□ 오후 발표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질문)**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경제 규모가 크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 요청
 - (답변)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 채굴(mining) 허가를 개방함에 따라 이미 암호화폐 거래와 제도들이 구축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유 예정.
- **(질문)** 우즈베크 핀테크 협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 요청
 - (답변) 민간 기업들의 협회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회 회원사들의 제안이 구체화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됨.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여타 기관에서 샌드박스를 도입하더라도 협력할 의사가 있고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우즈베크는 재작년 세계은행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제공받은 바 있으며, 좋은 안이라 이후 움직임을 주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음.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실제 추진이 되어 협력하기를 희망함. 마지막으로 핀테크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 문제가 시급하며 이러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

고 있음.

- **(질문)** 우즈베크에 이미 제공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한계점과 발전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 질문
 - (답변) 품질 측면 개선이 필요함.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농촌 지역까지 통합하여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 정부 측면에서는 데이터 포털이 개발되어 신생 기업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시장 분석이나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질문)** 우즈베크 시장에서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의 종류 및 특히 지불 시스템에 중점이 쏠린 이유 질문
 - (답변) 결제는 핵심 기능으로 결제 수락과 더불어 모든 제품에 결제 기능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은행 앱에서부터 서비스, 제품, 특히 유틸리티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피드백이 집중되고 있음. 결제는 개인간 송금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송금에 필요한 정보는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에 결제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질문)** 현재 해당 시장에서 결제 시스템 개발을 방해하는 최대 요인
 - (답변) 실제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유틸리티 비용 지불이 어려움. 한국의 경우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으나 현재 우즈베크의 경우 주요 2개 결제 공급 업체들에 카드 발급을 촉진하는 시스템 임.

□ 폐회사 (우혜영, KDI 평가팀장)

- 올해 진행되는 2차년도 KSP+ 사업은 더욱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실무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면담 참여가 필수적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연구 참여에 협조를 부탁함.

□ 활동 사진



2. 핀테크 기업 Payme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9:00-10:3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Payme 본사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유성희, 김윤경,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선지원(한양대), 장알렉(통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Nika Kurdiani(Payme CEO),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협조 요청 및 기업 소개

- **(우즈베키스탄 KSP 소개)** 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 주제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배경 설명
- **(Payme 소개)** Payme는 TBC 그룹 내 TBC 디지털뱅크, 전자상거래, Payme의 3개 디지털금융 사업체 중 하나로, 런던 본사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시작함.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은행은 여러 가지 있지만, Payme는 순수 디지털 기반 은행임을 강조함. 일반적인 은행 라이선스에서 벗어나는 서비스가 없어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필요성이 없음. 4년간 운영하며 우즈베키스탄 내 법률은 변경되는 대로 대처해 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유동성 있는 투자금이 모자라다는 사실임.

□ 질의응답

- **(세무위원회 보고 절차)** 2023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서 모든 결제 시 QR코드를 포함하고, 기본영수체계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 세무상 결제 내역을 모두 세무위원회에 결제대행사가 보고하도록 하는 형태임.
 - 다른 국가는 결제금액을 QR 또는 POS기 결제정보 최종 확인을 통해 전체 거래금액을 확인하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자결제 기기 내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확인하도록 강제한. 이러한 방식은 결제 앱 내 프로그램을 과부하시켜, 중소 핀테크기업 혁신을 저해함.
- **(한국 금융결제원 조정 모델 소개 및 비슷한 조직에 대한 활용 의향)** 금융결제원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없는 기관인 것은 확실하며, 어찌되었든 은행 신용도를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 부담을 주어 핀테크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닌, 핀테크 시장의 장기적인 확장임을 강조함.

- **(지불방법 다양화 규제상황)** 우즈베키스탄에는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얼굴인증, 지문인증 정보의 저장을 규제하는 법이 있음. 만약 업체가 반복적 생체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당 코드를 통해 인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런 기술을 거래에 사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할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음.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개인정보관리 센터에 문의해야 함.
- **(금융업 라이선스 내 디지털금융 포함 여부)** 금융업 라이선스는 종합적인 허가라 구체적으로 디지털인지 아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행 사실상 디지털 관련 서비스에서 규제되는 부분이 없음.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ICT 부는 사기예방 등 각 부처마다 별개 기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발전부 소속 IT 파크라는 플랫폼에서 벤처자금 지원, IT 관련 스타트업 규제 완화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활동 사진



3. 핀테크 기업 Uzum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2:00-13:3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zum 본사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유성희, 김윤경,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선지원(한양대), 장알렉(통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Sergey Lebedev(Uzum CEO), Alexander Filippovich, Temur Emirsaliyev(Uzum Bank 이사), Yulia Zhukova(Uzum 대외홍보 매니저),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협조 요청 및 기업 소개

- (우즈베키스탄 KSP 소개) 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 주제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배경 설명
- (Uzum Holdings 소개) Uzum holdings는 우즈벡에서 가장 큰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 기업으로 기업 성장, 온라인 쇼핑, 편리한 결제, 일상 생활 서비스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 제공
 - Uzum은 결제 서비스와 은행 서비스(Uzum Bank)를 동시에 제공하며, 디지털 बैं킹과 디지털 지불 서비스 간 통합을 위한 노력 중
 - 현재 34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1천여개로 확장 계획

□ 질의응답

- (우즈벡 금융기술 시장) 우즈벡 금융기술 시장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
 - 금융 기초 교육 및 디지털 환경 문해의 부족
 - 불안정한 디지털 인프라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및 규제 환경
 - 동시다발적인 금융기술 시장의 변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디지털 बैं킹 서비스) 우즈벡 전역에 Uzum banking 서비스 확장 중
 - 국내외의 사용가능한 디지털 बैं킹 서비스 확장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 중
 - 디지털 및 클라우드 확장과 IT 인프라 발전 과제
 - 불명확한 정부의 규제 적용 절차가 큰 장애 중 하나임
- (은행 라이선스 및 개인정보보호) 은행 사업 라이선스 취득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는 다른 관련 정부 기관에서 담당
 - 기업 내 자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유 중
 - 개인정보보호, 사기 방지,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고객 개인정보 보호 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대안 필요
- (한국 기업 지원제도) 한국 중소기업 창업 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 소개와 우즈벡 측의 유사한 기능으로 IT 파크 역할 공유
- (IT 파크 역할) 비자 발급 및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에 혜택 제공
 - 글로벌 기업과 우즈벡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및 비즈니스 개발
 - 국제 금융 거래에 선도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국제 송금 분야에서 활동
- (금산분리)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 간 금산분리 원칙이 우즈벡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활동 사진



4.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4:00-15: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 참석자:
 - 한 국: 유성희, 우혜영, 정희선(KDI), 선지원(한양대),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김근애(타슈켄트사무소 부소장), Saidov Ulmasbek, Irina Hwang(현지 사업관리자)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협조 요청 및 소개

- (우즈베키스탄 KSP 소개) 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 주제와 함께 현지 파악을 위한 세부실태조사 면담 배경 설명
 - 이전부터 KSP나 EDCF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무소인 만큼, EDCF의 입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도 및 현지 결제시장 현황을 듣고자 함.
- (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소개)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EDCF 사업으로 나뉘는데, 타슈켄트사무소는 EDCF 중점 사무소
 - 수출금융 관련 사업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간접금융의 일종인 전대금융 중심의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EDCF 업무
 - 전대금융 사업은 디지털부 산하에 있는 기관 담당이었지만, 2016년 사업 승인 당시 부처 개혁으로 현재는 디지털부가 직접 사업 실시
- (타슈켄트사무소 상대부처)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주로 대외투자통상부(前대외무역투자부)와 협업하며, 현재로선 대외투자통상부가 ODA의 주요 창구로 외채나 IFI(국제금융기구) 사업을 총괄

- ODA 사업 특성상 지원금을 전달하기 때문에 재무부 역할을 하는 경제재정부와도 소통
-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경제재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ODA 나 해외투자 자체에 대한 행정적 권한은 투자부 위주
- 우즈베키스탄 정부 부처별 영향력이 다양함. EDCF 보건의 사업의 경우, 보건부와 협업하고 있지만 보건부 내 업무량이 많고 5~6개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 단계에 있어 사업 수행 여력이 부족함. 정권 교체와 부지 변경 등의 이유로 작년에야 컨설턴트 협정이 성립됨.

□ 질의응답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현황)** 현금 이체나 전자상거래 환경이 매우 직관적으로 발달하여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QR 결제 가능 점포 증가가 눈에 띈다.
 - 기술 자체의 저개발 문제보다 인터넷 연결 문제가 큼.
- **(정부의 ICT 인력 양성 강조)** 러-우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 중 ICT 인력들이 비대면 업무를 진행한 것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관찰함.
 - 해외 인력 파견이 아닌 비대면 업무 진행이 가능한 ICT 인력 양성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심도 상승
 - KOICA 등의 기관을 통해 ICT Park 관련 사업이 다수 전개
- **(우즈베키스탄 법률 시스템 현황)** 제도 설계 방법이나 전략 측면에서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지에서 법률의 실질적인 위상을 질문
 - EDCF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전용으로 발효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 사업 단위가 아닌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령이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발효함. 법의 개편이 제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이 모든 법률 체계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님.
 - 내각령이나 대통령령과 기존의 법률이 서로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되기도 함. 예시로 허가장 없는 거래 시 15일 구속을 한다는 명령이 민법에 3개월 후에 반영될 예정임.
 - 참여 사업 관련 법률을 찾기 어려움. 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 하위 법률 체계가 산발적으로 존재함.
- **(기업 지원 통합 시스템)** 한국의 경우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지에서 위와 같은 통합 시스템

이 부재한지 질문

- 관할 부처나 종합 데이터센터는 없지만, 작년에 행정 처리 관련 정부 포털이 개설됨.
- **(정부 협력도)** 체계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경우가 많음. 상부 승인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향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 은행 진출 현황)** 현재 현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 은행은 KDB산업은행이나, 최근 신한은행과 BMK가 우즈베키스탄 시장 조사를 위해 사무소 개소
 - 최근 터키 은행이나 카자흐스탄 은행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 헝가리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은행 중 하나를 인수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현황)**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기업과의 면담에서는 기술력 부족보다는 모바일 보급률 미흡이나 도서지역 통신 서비스 망 부족 등의 기반 시설의 문제가 부각됨. 이외 체감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함.
 - 주거래 은행의 거래 수수료가 0원인 한국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0.1~2% 정도의 은행 거래 수수료를 개인 소비자가 부담함.
 - 개인 소비자가 거래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Uzum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던 기업이었음. 현재는 수수료가 올랐으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 banking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임. 증권 시장이 사실상 부재하며,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도 강한 편임.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시민들이 우즈베키스탄 화폐 대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함.
 - 우즈베키스탄 환율이 2년 사이 20% 오르며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를 보임. 정부에서 국내 달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2023년에는 개인당 계좌에서 1만불 이상 출금이 금지됨. 현재는 1년에 12만불로 완화되었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직된 편임.

□ 사진자료



5. 핀테크 기업 Payze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09:30-11:3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Payze 본사
- 참석자:
 - 한 국: 유성희, 김윤경(KDI), 선지원(한양대), 장알렉(통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Izaat Shukurov(Payze Uzbekistan GM),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협조 요청 및 기업 소개

- (우즈베키스탄 KSP 소개) 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 주제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배경 설명
- (Payze 기업 및 사업 소개) Payze는 Payment facilitator로써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모든 카드의 결제 수락과 이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솔루션을 제공
 - 글로벌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의 온라인 결제 시 수락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운용·관리

□ 질의응답

- (우즈베크 디지털 금융)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과 온라인 뱅킹은 아직 작은 규모이나 빠르게 성장 중
 - 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아직 현금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은행이용률과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률이 낮은 편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은행 이용 활용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이 필요

- (라이선스 및 규제 현황) 우즈베크 핀테크 관련 규제 현황과 경험 공유
 - 우즈베크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 기관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취득
 - 자본투자 요구액 증가, 시장 진입 조건 등 결제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정부로부터의 투자 지원은 없음
 - 불명확한 정부의 규제 적용 절차가 큰 장애 중 하나임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한국식 규제 샌드박스 개념에 대한 우즈베크 관련 이해관계자들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란
 - 이해관계자들의 한국의 관련 규제 기관 체계 및 협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앙은행, 경제재정부 등 정부의 결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시장은 기술과 서비스별로 3개 레벨의 기업군으로 나뉘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필요
 - 현재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 제한적 요인 존재
 - 우즈베크 핀테크 관련 기업들 간 활발한 협의가 필요

□ 활동 사진



6.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스타트업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11:00-12: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등교육과학혁신부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 우즈베키스탄: Umidjon Khoshimov(투자유치부서장), Aziz Ilkhamov(스타트업 생태계 개발부서장), Jahongir Usterirov(국제협력부 직원)

□ 사업신청서 소개

-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벤처 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부 과제 제안
 - (세부주제1)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및 겹 분석
 - (세부주제2) 기업가 교육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 (세부주제3) 벤처 기금 여건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세부주제4)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조사
 - (세부주제5) 스타트업 규제 영향 평가 및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개발

□ 사업내용 보완 논의

- KSP+ 추진 가능 시 사업계획 및 주제 보완 방향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및 겹 분석,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 (2차년도) 현지 벤처기업 기금 수요 및 여건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조사
 - (3차년도) 스타트업 규제 영향 평가 및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개발

□ 기타 고려사항

- 혁신개발부는 창업 지원 및 국가 과학·혁신 프로그램 개발 담당 부처로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 및 관련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KSP+ 다년도 확장 의향 및 해당 부처가 현재 진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방식을 확인
 - 이후 현지 스타트업 현황 통계자료 및 부처 조직도 공유를 요청

□ 활동 사진



7. 국영 통신사 Uztelecom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14:00-16: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ztelecom 본사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유성희, 김윤경,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선지원(한양대), 장알렉(동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Vladimir Sigaev(Uztelecom CEO 자문위원), Shoolim Shamansurov(홍보부 이사), Ibragim Abdulohidov(Uztelecom 국제협력업무 담당),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 2023/24 우즈베키스탄 KSP 협조 요청 및 기업 소개

- **(우즈베키스탄 KSP 소개)** 23/2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 주제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배경 설명
- **(Uztelecom 소개)** 본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이동통신 및 케이블 TV 서비스 등을 제공함. 90% 이상 우즈베키스탄 정부 소유이며 10%는 IBO를 통해 상장한 사실상 국영 기업임. 일반 전화 서비스는 Uztelecom이 90% 이상, 이동통신시장은 30% 가량을 차지함. 이외에는 디지털서비스 미디어 매체 또한 개발하며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핀테크 금융 분야로 확장할 의향이 있음.

□ 질의응답

- **(핀테크 금융업으로의 확장)**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 시장이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태동 단계임. 본사 고객 수는 총 인구의 천만 명 가량으로 총 인구의 1/3임. 유심에 이미 연결된 계좌정보를 확보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사용 요금, 회원 연체 내역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고객신용도평가를 통해 소금융 및 신용카드 발행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함. 아직 금융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다면 자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은행과 협업할 수 있음.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고객정보를 가명화, 개인정보 보호를 할 용의가 있음.

*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통신사가 모바일 기기를 할부판매 할 수 있으나 Uztelecom은 여러 규제로 인하여 통신사와 기기 판매가 분리된 자급제 거래만 가능함.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 **(현지 네트워크 인프라)** 우즈베키스탄 국토 90% 이상은 이동통신이 가능하며, 매년 커버율이 증가함. 이동통신 가능 지역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추가 구축하기도 함.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인프라를 개선

하며, 정부 지원은 따로 없지만 2030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 커버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국민 여론을 위해 도서지역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주요 도시는 4G, 5G가 이미 가능함.

- **(현지 모바일 보급률)** 우즈베키스탄 인구 내 모바일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부재함. 연령대 및 통신 불가 지역을 고려하면 100% 달성이 불가능함.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는 요금정책을 더 저렴하게 하고 싶지만, 지역별 차별요금제는 정책상 불가능함.
- **(사기업 인터넷 이용료)**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핀테크 기업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본사에 지급하는 이용료 정책은 따로 없으나, 국제 환경에서 특정 통신사가 유튜브 접속을 막지 않는 대신 이용료를 받는 상황은 인지함.

□ 활동 사진



8.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 샌드박스 KSP+ 3차년도 사전타당성 조사 면담

-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16:30-18: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경제재정부 회의실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장알렉(통역)
 - 우즈베키스탄: Otabek Karimov,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 사업신청서 소개

-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부 과제를 제안함.

- (세부주제1) 우즈베키스탄 금융 서비스 산업의 시범 프로젝트 영향 평가
- (세부주제2) 프로젝트 사후 분석을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제안
 - * 지속 가능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변화 관리
- (세부주제3) 우즈베키스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기관 및 관리 역량 강화
- **(KSP+)** 기존 연도별 사업내용 연계 흐름
 - (1차년) 협력국 규제 현황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계 및 우선과제 도출
 - (2차년) 22/23 사업에서 도출된 규제 샌드박스 우선추진 과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설계, 이행 및 제도화*
 - * 파일럿 프로젝트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 수준(법령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관련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 (3차년)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및 제도화 이후 발생한 영향 분석, 변화관리 방안 및 관련 기관·인적 역량강화 방안

□ 사업내용 보완 논의

- **(주제 축소)** 23/24 2차년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사업과 중복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제 보완 필요
- **(사업일정 순연)** 23/24 2차년도 사업 종료 후 24/25 중 2차년도 사업 기반 시범사업 진행, 이후 25/26에 분석평가를 진행하는 일정이 적절
 - 특히 24/25년 사업 공백 사이에 경제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조직 및 해당 조직을 운영할 규정을 확립하고, 25년 9월부터 샌드박스 참여 기업 영향 데이터가 필요함을 강조
 - 24/25년 중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더라도, 25/26년도 동안 조직이 운영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요청

9. 경제재정부 마무리 회의

-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14:00-16:00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경제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 한 국: 우혜영, 유성희, 김윤경, 정희선(KDI), 이민창(조선대), 선지원(한양대), 장알렉(통역), 박하영(YKSP)
 - 우즈베키스탄: Otabek Karimov, Ziyod Bekhzodov(경제재정부 중소기업개발정책 분석지원부서 현지관계자), Alibek Bekmirzaev(법무부 현지전문가), Bakhrom Juraev(중앙은행 현지전문가), Jasur Jalolov(거시경제전망연구소 현지전문가), Zuhridin Shadmanov(ICT부 현지전문가)
- * Jasur Jalolov 화상참여

□ 인사 및 세부실태조사 성과 공유

- (인사말) 본 회의에 참석한 현지전문가 및 이번 출장에 협조해 주신 경제재정부 관계자에 감사 전달
- (주제 1) 이번 출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기업의 참여 의지를 확인함. 현지전문가에게 TOR로 요청한 세부 자료를 환기하며 협조를 요청함.
- (주제 2) 전년도 현장조사 및 올해 기업 면담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가 늘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지 않은 것을 확인함. 하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규제 환경이 상이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음을 이해하며, 해당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조직 구성 제안에 있어서 사전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복수의 제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함. 또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임.
- (주제 3) 이번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서비스 현황과 기반 시설을 확인 후, 한국의 선진적인 사업 모델에 기반하여 규제 샌드박스로 신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함. 현지전문가에게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환경 조성 역사, 인프라 분석, 기술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료 정리를 요청함. 또한 우즈베키스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개선점이나 기술을 요청함.

□ 현지전문가 TOR 관련

- (계약서 내용 수정) 주제 2로 배정되었던 Otabek Nasirov 현지전문가가 주제 3으로 변경되며 주제 3 Zuhridin Shadmanov 현지전문가의 보고서 요청내용 또한 변경됨. 이에 따라 이번 출장에서 서명을 받지 못한 현지전문가 TOR 계약서는 추후 스캔본으로 교환하고, 원본을 4월 정책실무자연수 때 받을 예정임.

□ 향후 사업단계 일정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2024년 4월 22일~4월 26일 일정으로 확정함.
 - 해당 일정은 한국에서 진행되므로, 3월 중순까지 안전하게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출장단 명단 요청 공문을 교환해야 함.
- (현지전문가 보고서 제출마감일) TOR에 작성된 내용 확인함.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2024년 7월 중순으로 예정됨.

□ 기타 사항

- (법무부) 회의 전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규제 샌드박스 담당 조직 진행 초안을 공표함. 경제재정부, 중앙은행, ICT부, 농업부 외 1개 정부 기관(미언급)은 각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ICT부 및 농업부 외 3개 부처는 이미 조직을 개설함.
 - 해당 안을 연구진께 공유하여 피드백을 요청함.
- (경제재정부) 현재 경제재정부 내부 일정으로 고위급 사업관리자 Ilkhom Norkulov 차관이 부재하여 AA 서명이 불가능함. 추후 전자 스캔본으로 전달할 예정임.

5 총평

- 본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의 목적은 1) 연구 주제에 대한 협력대상국 실무자의 의견 수렴 및 협조 요청, 2) 핀테크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국 현황자료 확보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 **(연구경과 공유)** 현지세미나 발표를 통해 23/24 우즈베키스탄 KSP의 연구 세부주제 및 최종 산출물 예정안을 공유하여 향후 연구 협조를 위한 연구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제 이해도를 높임.
- **(핀테크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실무자 면담)**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 절차 및 유관 기관, 인프라 보급 환경 및 민간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음.
- **(조사 결과 반영 계획)** 잠정 정책제언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도출할 예정
- **(후속사업 논의)** 2024/25 긴급사업으로 제출된 KSP+ 3차년도 사업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을 시범사업 평가 위주인 사업 특성상 기간 순연 및 축소하도록 논의
- **후속조치사항**
 - AA 교환
 - 현지전문가 계약 진행
 - 2024.04.22.~04.26. 계획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준비
 -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에 공식 서한의 형식으로 출장단 명단 요청

6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3월 15일: 중간보고서 제출
- 2024년 3월 26일: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 2024년 4월 22일~4월 26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국내초청연수)
- 2024년 5월 17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 2024년 7월 중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현지)
- 2024년 8월 9일: 최종보고서 제출